

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6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 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차남준 의원의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창대교(고창 해라-부안 변산)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최인규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회기동안 전달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취소

정읍시가 올해로 15회를 맞는 구절초 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를 긴급소집, 올해 축제 진행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해 축제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며 내년에는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제7기 축제위원회를 구성한 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가 이날 심의와 함께 강연천 정읍시시장 협의의장을 축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만원의 행복보험' 든든해요

## 정읍시, 도내 첫 취약계층 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입원비 · 수술비 · 사망위로금 등... 내달 2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전북도 최초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사업을 추진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지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미래위험에 대한 보장 준비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사고에 따른 입원비(1일 1만원)와 수술비(최고 100만원)가 보장되고, 재해

로 인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6,698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2억4,400여만원이 소요되며, 1년 만기 후에는 본인 부담금 1만원을 내면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관련해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지원봉사센터는 16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마련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우체국은 공익자금으로 나머지 보험료 납성 1인당 3만1,900원, 여성 1인당 2만1,100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보험 가입 설명과 신청, 심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읍시지원봉사센터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최첨단 배양탱크와 개별포장시설을 갖춘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운영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연간 500톤의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 고창군, 고품질 미생물 활용 농산물생산 기반구축 '눈길'

###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용미생물(EM)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에 박차를 가고 있다. 16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첨단 배양탱크와 개별포장시설을 갖춘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운영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연간 500톤의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3종(EM균, 광합성균, 고초균)의 미생물 공급에 더해 특허미생물 복합기능 미생물(CH1-13균)과 불가사리 액비 등 2종을 추가로 농업 작물재배용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허미생물 복합기능 미생물(CH1-13균)은 작물 뿌리 생육증진과 주요 병원균의 생육억제 활성이 우수한 균주다. 균은 주요 수출품목인 딸론 재배 단지에 확대 보급해 병충해 방제에 애쓰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방침이다. 여기에 바다의 포식자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로 만든 액비도 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가사리와 유용미생물인 EM균을 발효·속성해 액비로 만들면 작물의 생리장애에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미생물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급시기와 방법 등을 개선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며 "농업 현장에 유용미생물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통한 효과검정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유진섭 정읍시장 "변화와 기회의 시대, 소통 · 협업 중요"

### '더 큰 도약위한 힘찬 출발' 시정 핵심 프로젝트 설명회

정읍시는 16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 주요 핵심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유진섭 시장과 과·소장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이 배석하고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유진섭 시장은 정읍을 업그레이드 시킬 핵심사업들을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항기공화국 조성 ▲정읍시공원 주변 개발 ▲SOC 확충, ▲동화농민혁명 기념시설 조성 ▲용산호 주변 개발 ▲도시재생사업 ▲악취제로 시티 조성 등 중 · 장기적인 7개 사업이다.

### 부안군, 경로당 무더위쉼터 개방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폐쇄 중인 부안지역 경로당 운영이 재개된다. 부안군은 경로당 운영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로당 운영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로당 일제소독과 청소를 통해 경로당 재개를 준비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사전준비가 완료되고 경로당 개방신청서를 제출한 경로당부터 차례대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경로당 내 식사는 금지된다. 또 방역관리자 책임 하에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외부인 출입 명부 작성, 이용자수 제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는 16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 주요 핵심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유 시장은 시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각 부서 실과소장이 시정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서별 소통과 공유, 협업을 당부했다. 또 시민들의 시정 참여 속에 차질없이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1차로 각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시정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2차로 실과소장이 종합행정 담당 읍면동을 출장, 이·통장을 대상으로 핵심사업 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중점관리 대상 사업 국비반영 행정력 집중

### 기재부 방문, 당위성 설득

유진섭 시장이 2021년도 국가 예산 중점관리 대상 사업 국비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15일 2021년도 국가 예산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 방문에 정읍시 현안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한 대응 활동을 벌였다. 이날 한훈 경제예산심의관과 김원섭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하고,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건의한 사업으로는 ▲방사선 분해 기반 축산악취 처리시스템 개발 ▲웰빙의료용 소형가속기 구축사업 ▲신대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 ▲정읍 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교육관 신축 ▲건강 기능성 펩티드 산업 플랫폼 구축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축산환경 개선사업 ▲덕천 처리 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이다. 특히, 유 시장은 방사선 분해 기반 축산악취 처리시스템 개발사업은 축산 현안 4대 과제 중 하나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유 시장은 "내년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핵심사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 및 도내정치권과 공조하여 기재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